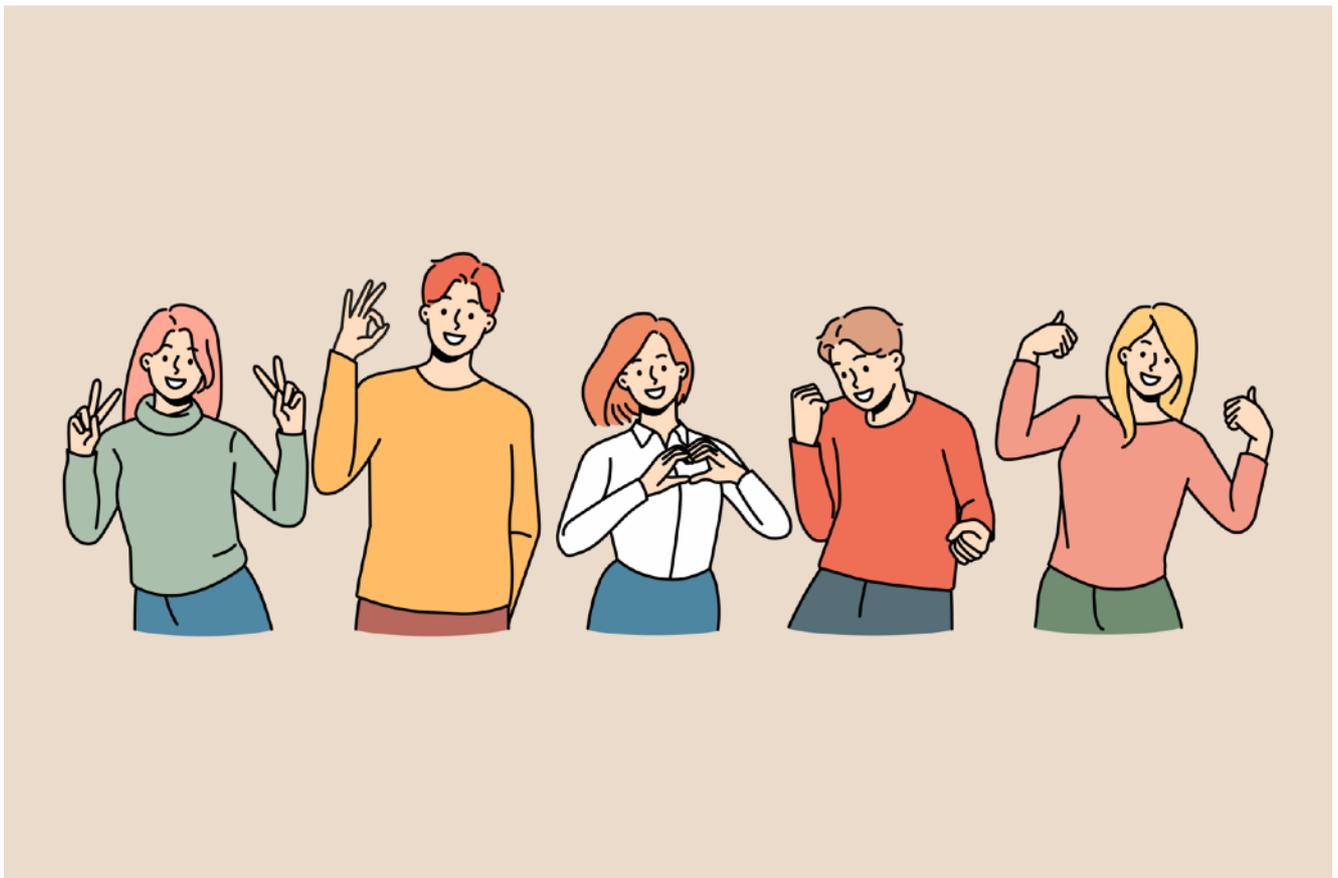


주요 내용

1. [한국의 사회적 약자 리포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실태]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2022 한국선교현황
 - 2) 한국인의 소통 방식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보육원을 나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기숙사 방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보육원을 나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청년이 '삶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기간을 연장 중이던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자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이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을 말한다.*
(2022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되어 여기서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이번 <넘버즈 183호>는 한국사회의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일반 환경의 청년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보호가 끝나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고충과 필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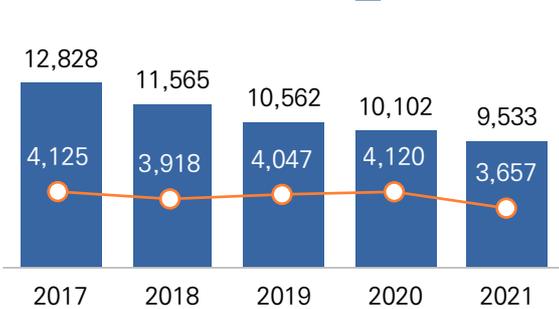
01

[보호대상아동 실태]

보호대상아동 3명중 2명은(63%)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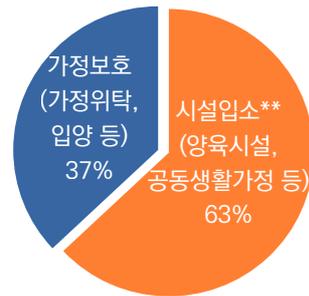
- ▶ 2021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수는 총 9,533명이며, 해마다 약 4천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입소'가 63%이고 나머지 '가정보호'가 37%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서 비슷한 환경의 아동과 함께 공동으로 보호조치 되고 있다.

[그림] 보호대상아동 현황 (명)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2022.07

[그림] 보호조치 유형 (2021)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 2022.05.31.

**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에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설
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아동 절반은 '학대'로 발생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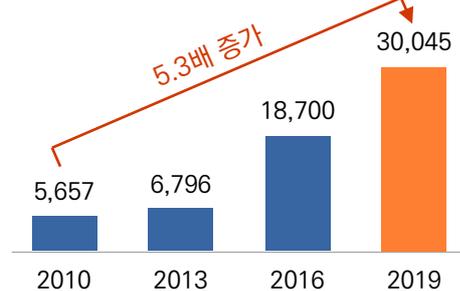
- ▶ 보호대상아동의 절반 가까이(47%)는 '학대'로 인해 발생됐고,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30% 가량은 부모의 이혼과 죽음 빈곤, 미혼부모·혼외자 등 '불완전한 원가족'과 '원가족의 기능 붕괴'가 그 원인이었다.
- ▶ 아동학대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약 3만건으로 9년 동안 무려 5.3배나 증가하였다.

[그림]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2021,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 2022.05.31.

[그림] 아동학대 발생건수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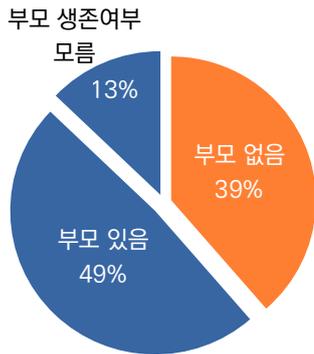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1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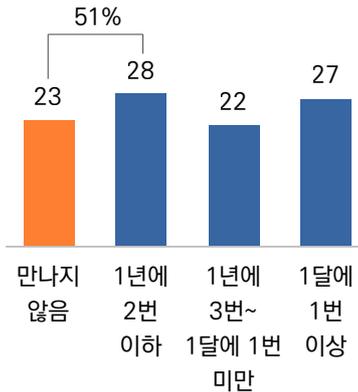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부모 없거나 모른다'!

- ▶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모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49%)은 '부모가 있다'고 응답했고, 39%는 '부모 없음', 1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 ▶ 부모와의 만남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51%)이 만나지 않거나 1년에 2번 이하 만나는 정도인데, '만나지 않는 이유'로는 '내가 부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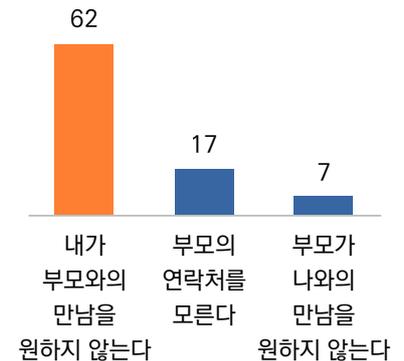
[그림] 부모 유무



[그림] 부모와의 만남 정도 (부모가 있는 자립준비청년, %)



[그림] 부모와 만나지 않는 이유 ('부모와 만나지 않음' 응답한 자립준비청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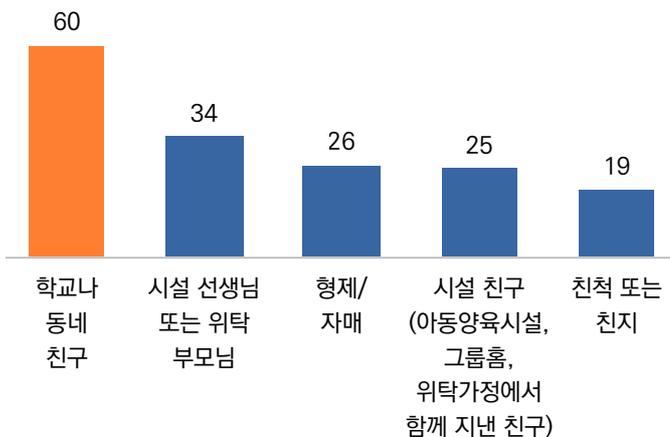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기타 응답(13%)은 제외함

◎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보호자'보다 친구!

- ▶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학교나 동네 친구'가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 선생님 또는 위탁 부모님' 34%, '형제·자매' 26%의 순이었다.
- ▶ 친구 등 동료 집단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그룹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2+3순위,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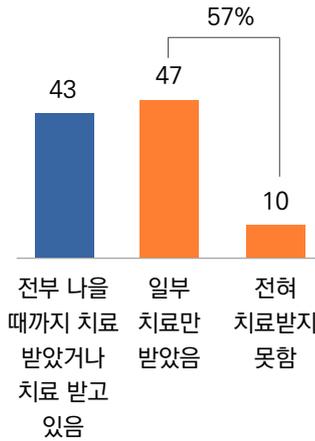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질병 경험자, 절반 이상이 치료 제대로 못 받아!

- ▶ 자립준비청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최근 1년간 질병 경험’을 묻은 결과, 3명 중 2명(64%)이 ‘있음’으로 응답했고, 이에 대한 치료 여부를 물었을 때 ‘전부 나올 때까지 치료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47%는 ‘일부 치료만’, 10%는 ‘전혀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돼, 절반 이상(57%)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치료받지 못한 이유로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8%로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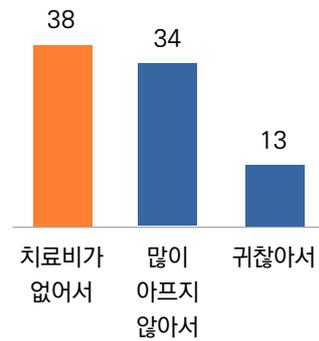
[그림] 지난 1년간 질병 경험



[그림] 치료 여부 (최근 1년간 질병 경험 있는 경우, %)



[그림] 미치료 이유 (최근 1년간 질병 있었으나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경우,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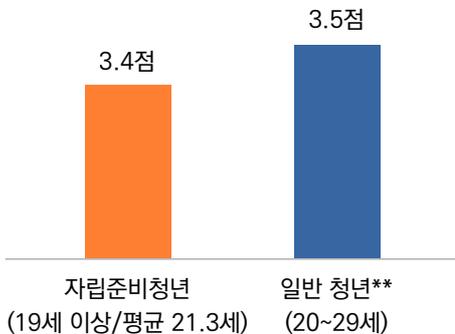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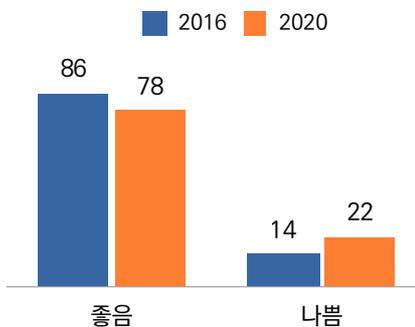
◎ 자립준비청년 ‘주관적 건강상태’, 일반 청년보다 안 좋고 4년 전 조사 대비 하락해!

- ▶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4점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이었다.
- ▶ 건강상태에서 ‘ 좋음(매우+약간)’ 응답 비율은 78%로 나타나 4년 전인 2016년 대비 8%p 낮게 나타난 반면 ‘나쁨(매우+약간)’은 2020년 22%로 2016년 14% 보다 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주관적 건강상태 (2020, 5점 척도, 평균)



[그림] 자립준비청년 주관적 건강상태 (2016 vs 202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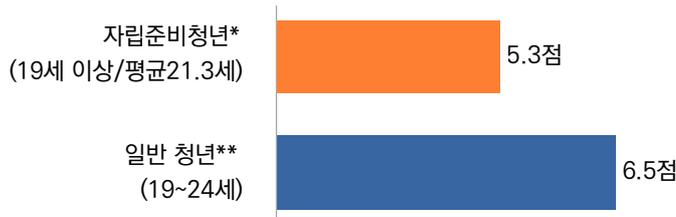
***2020년도 결과를 비교를 위해 4점 척도로 환산함(2016년 조사는 4점 척도로 진행)

04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와 정서] '삶의 만족도', 일반 청년 대비 낮은 수준!

- ▶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할까? 삶의 만족도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0은 가장 나쁜 상태를, 10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5.3점, 보통 수준이었다.
- ▶ 대상 연령과 조사 방법 상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를 감안하여 타 조사와 비교해 보면,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19~24세 응답)의 6.5점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삶의 만족도 - 일반 청년 비교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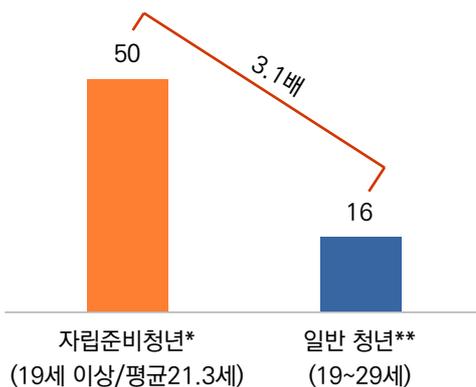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1(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전국 5,078가구, 청소년 7,676명,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2017.6.27.-9.29)

◎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50%),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 ▶ 자립준비청년의 절반(50%)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청년들의 '2018년 자살실태조사' 결과(16%)와 비교해봐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 ▶ 자살 생각의 원인은 3명 중 1명(33%)이 '경제적인 문제'를 들었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문제' 20%, '정신과적 문제' 11%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생활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도 적지 않은 비중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 타 조사 비교 (%)



[그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자살생각 경험자, 상위 4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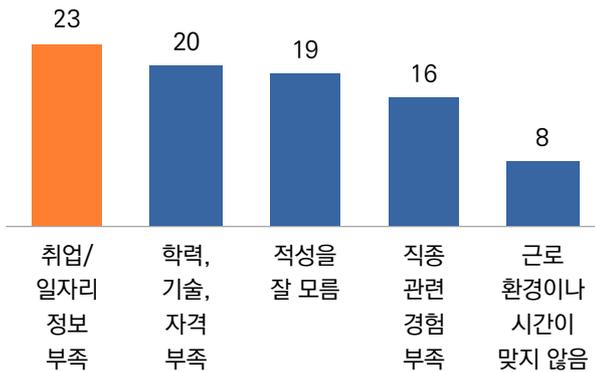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18 자살실태조사, 2019.06.27.(만 19~75세 이하 성인 1500명, 대면조사, 2018.11.21.~12.17), 단, 위의 비교대상자인 19~29세 응답자 수는 286명임.

05

[자립준비청년의 취업과 경제] 취업 시 가장 어려운 점, '정보 부족'과 '자격 부족'!

- ▶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준비 시 겪는 어려움을 묻은 결과, '취업/일자리 정보 부족' 23%, '학력 및 기술 자격의 부족' 20%, '적성을 잘 모름' 19%, '직종 관련 경험 부족'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적성 탐색 및 (체험형)직업교육 등 학령기 때 이미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충분히 제공·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취업 준비 시 당면하는 어려움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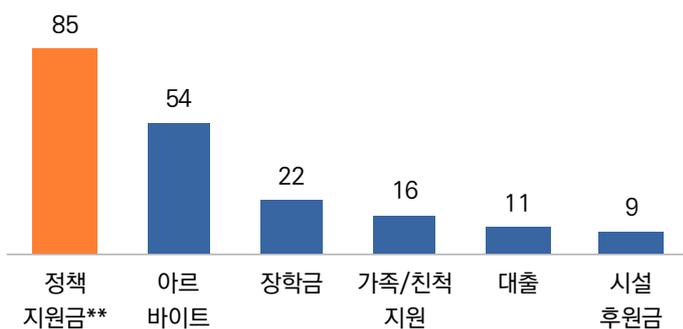
◎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등록금, 생활비는 주로 정책 지원금과 아르바이트에 의지해

- ▶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 원, 월평균 생활비는 8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 자립준비청년의 대학생 시기 등록금,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이 가장 많았으며(85%), 절반 이상은 아르바이트(54%)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월평균 소득과 생활비



[그림] 등록금, 생활비 마련방법 (대학교 재학/졸업자,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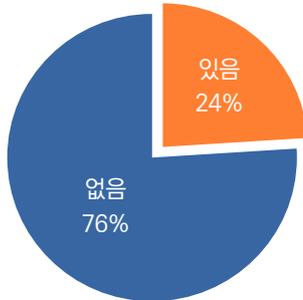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시설후원금, 디딤씨앗통장,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자립준비청년의 평균 부채액 605만 원!

- 자립준비청년 중 24%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고, 부채액 평균은 605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부채 발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생활비 마련'(66%)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자금 마련 30%, 주거 마련 24%로 '학자금과 주거 마련'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부채 여부



[그림] 평균 부채액과 부채 발생 사유
(부채 있음 응답자, 중복 응답,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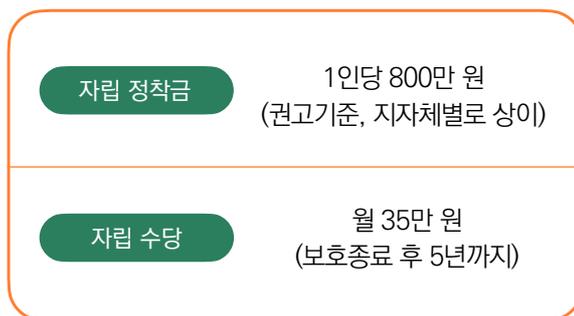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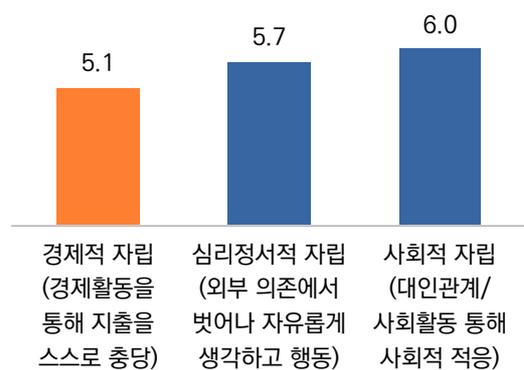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지원] 정착금 800만 원, 월 자립수당 35만 원!

-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지급되는 자립수당 월 35만 원과,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800만 원 권고)이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 자립준비 정도를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11점 척도(0=전혀 준비가 되지 않음, 10=완벽하게 준비됨)로 조사하였다. 경제활동을 통해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는 정도인 '경제적 자립'은 보통 수준인 5.1점이었는데, '심리정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보다 낮게 응답되었다.

[그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립 지원제도



[그림] 자립 준비 정도 (주관적 인식, 11점 척도)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12(보호종료 1~5년차 청년 3,104명, 웹설문, 2020.09.17.~11.30)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의 아동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 수는 총 9,533명이며, 해마다 약 4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입소’가 63%이고 나머지 ‘가정보호’가 37%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통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큰 오해이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39%에 그치고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전체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절반인 49%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이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호되던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한다. 해마다 약 2천 명이 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시설에서 나올 때 정부에서 자립정착금 명목으로 800만 원(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정도를 받고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월 35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는다. 최초 800만 원으로는 변변한 방 한 칸도 마련할 수 없다. 아직 준비도 덜 된 채 떠밀려 사회에 나온 이들의 월 수입도 12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활에 쪼들릴 수밖에 없으며 1인당 평균 60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채를 안고 살아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배워야 하는데 자립 교육이 미비하거나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 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르더라도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들은 주위에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별로 없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11점 척도에서 5.3점 밖에 되지 않았다. 만 19~24세 일반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6.5점인 것과 비교하면 자립준비청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만 19~29세 전체 청년의

경우는 16%였는데 자립준비청년들은 50%, 즉 절반이나 되었다.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고단한 현실에 놓여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려 절반이나 되는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부모로부터 내몰린 자녀들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처럼 생명의 가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무궁하다. 부모들이 한 생명을 잉태하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부모의 책임감이란 자녀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하는 데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대, 부모의 이혼, 미혼부모 등으로 인해서 보호대상아동이 생긴 것을 보면 과연 그 부모들, 아니 우리 사회에 과연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비록 자기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결코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생명 존중의 지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 책임감을 온 사회가 두루 공유해서 한 생명도 버림받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다.

둘째로 자립준비청년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따뜻하게 맞이할 공동체적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이들은 자기가 원해서 혹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호대상아동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사회적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곳곳에서 고아를 돌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자기 이익만 좇는 경쟁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살리고 한 생명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1.[2022 한국선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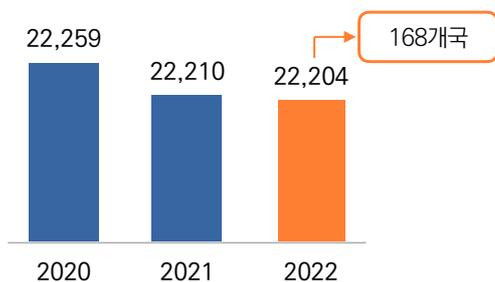
2.[한국인의 소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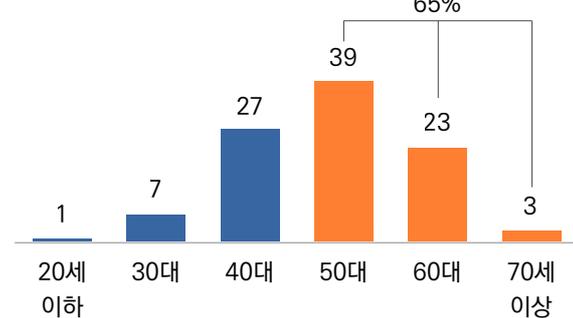
40대 이하 젊은 선교사 충원 안되면, 20년 뒤 선교사 65% 감소 예상!

-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한국선교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해외 선교사는 168개국에서 사역 중이며, 장기 선교사는 총 22,20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비슷한 수치이다.
- ▶ 한편 장기 선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선교사의 65%를 차지한 반면, 30대 이하 선교사는 8%에 불과했다. 선교사들이 7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40대 이하 선교사들이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26%, 20년 뒤에는 65%의 선교사가 감소하는 셈이다.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와 젊은 선교사 충원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2020~2022 장기 선교사** 현황 (명)



[그림] 장기 선교사의 연령별 분포 (%)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2 한국선교현황, 2023.02.21.(228개 선교단체·교단, 온라인 및 전화조사, 2022.11.09.~12.31)
 **장기 선교사 정의 : 타문화권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한국 국적)으로서, 한국 내에 분명한 파송 단체 혹은 후원 주체(개교회 파송은 제외)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임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함 (국내 본부의 장기, 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비량 선교사는 인정하고,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계산함)

◎ 선교사들의 '현재 사역지'와 '신규 파송지', 아시아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아!

- ▶ 선교사들의 사역 대상국을 대륙별로 묶어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아시아'가 절반 이상(59%)을 차지했고, 그 외 사역 대상국으로 '북미' 9%, '유럽' 9%, '아프리카' 9% 등의 순이었다.
- ▶ 신규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 대상국가로는 역시 '아시아'가 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17%, '중동' 12%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신규 선교사 파송 비율이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현재 사역 국가 vs 신규 파송 국가(대륙)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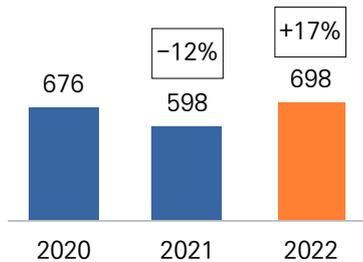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2 한국선교현황, 2023.02.21.(228개 선교단체·교단, 온라인 및 전화조사, 2022.11.09.~12.31)
 **현재 사역과 신규 파송 대륙에서 각각 기타와 미정은 기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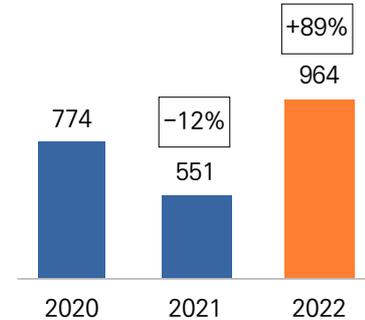
◎ 코로나 시기 감소했던 선교사 파송 훈련 및 교육, 2022년 회복세로 전환!

- ▶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 및 선교사 교육 관련 최근 3년 간의 참가자 수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1년 사이 '파송 훈련 참가자 수'와 '교육 참가자 수' 모두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시 반등하며 회복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교사 교육' 참가자가 2021년 이후 1년 사이 89%나 크게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선교사 파송 훈련 참가자 수** (2020~2022, 명)



[그림] 선교사 교육 참가자 수** (2020~2022,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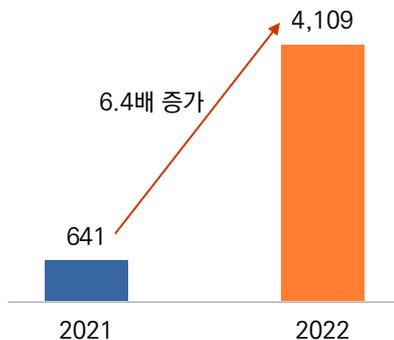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2 한국선교현황, 2023.02.21.(228개 선교단체·교단, 온라인 및 전화조사, 2022.11.09.~12.31)
 **박스 안의 수치는 증감률임.

◎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2022년 전년 대비 6.4배 급증!

- ▶ 이번 조사에서 '단기 선교사' 개념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정의하고, '1년 미만'은 '단기 선교 활동'으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는 2021년 641명에서 2022년 4,109명으로 무려 6.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년 미만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2021~2022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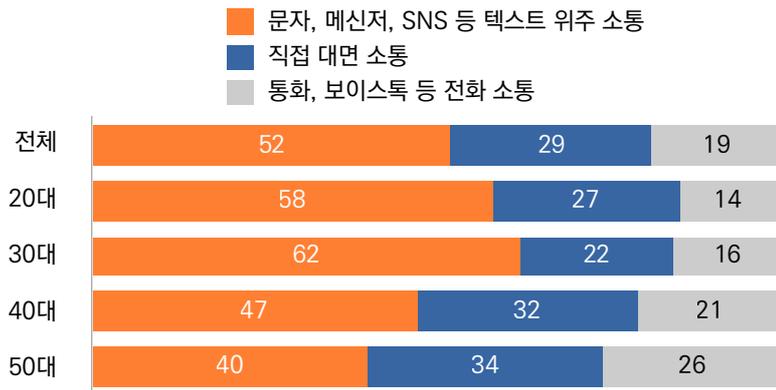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2 한국선교현황, 2023.02.21.(228개 선교단체·교단, 온라인 및 전화조사, 2022.11.09.~12.31)
 **단기 선교 활동 기간은 1~3주, 4주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각각의 참가자 수를 모두 합쳐 해당 연도의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로 집계함



선호하는 소통 방식, 2030세대, ‘말’보다 ‘글’로 하는 소통 더 선호해!

- ▶ 만 19세 이상 우리 국민에게 문자, 대면, 전화 소통 중 평소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에 대해 물었더니(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절반 남짓(52%)이 ‘문자, 메신저, SNS 등 텍스트 위주의 소통’을 꼽았고, 다음으로 ‘직접 대면 소통’ 29%, ‘전화 소통’ 19% 순이었다.
- ▶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텍스트 소통’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화 소통’을 선호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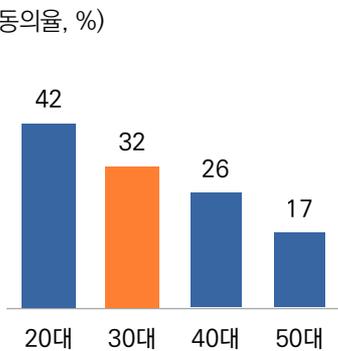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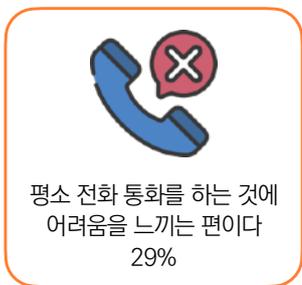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일상 속 ‘전화 통화’ 경험 관련 조사, 2023.02.05.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1.30.~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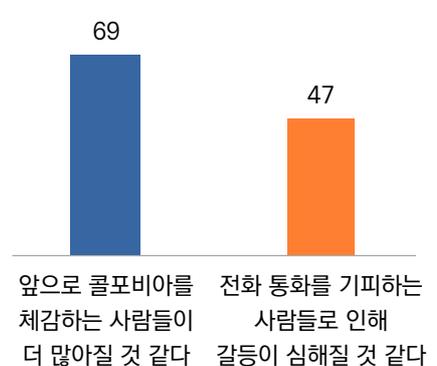
◎ 우리나라 20대, 5명 중 2명은 ‘평소 전화 통화 어려움을 느껴!’

- ▶ 우리나라 국민 중 평상시 전화 통화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전화 통화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토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42%가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인 콜포비아**에 대한 인식을 묻은 결과, 앞으로 콜포비아를 체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고(69%), 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것 같다(47%)고 전망해 향후 콜포비아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이슈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평소 전화 통화 어려움 평가 (동의율, %)



[그림] 향후 콜포비아 현상 관련 전망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일상 속 ‘전화 통화’ 경험 관련 조사, 2023.02.15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11.30.~12.02)

**콜포비아(Call Phobia)란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통화보다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소통을 선호하는 것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33호 \(2023년 3월 2주\)](#)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차 변제 방안, 한일 관계 방향,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등

◎ 사회 일반

[\[출산율 0.78의 나라 \(중앙일보\)\]](#)

[1. 애 없는 月천만원 부부, 애 낳은 月550만원 부부...이게 달랐다](#) _2023.03.08.

[2. "애 안 낳는 게 부성애" 요즘은 남편들이 '딩크족' 외친다](#) _2023.03.09.

[2015년에 무슨 일이... 한국 만의 문제 아닌 저출산, 원인은 SNS?](#)

조선일보_2023.03.11.

[교통사고 사망 4명중 1명, 고령 운전 사고](#)

동아일보_2023.03.10.

["한국하면 '이것' 떠올라"...외국인에 물어본 한국, 결과는](#)

매일경제_2023.03.10.

["2등 664명 번호 우리가 찍어줬다"...로또 리딩방 실체 '충격'](#)

중앙일보_2023.03.11.

[돌싱여성 62% "내 전 남편 만난 여자, 행복하지 않을것"](#)

뉴시스_2023.03.14.

[국민 70% "탈세해도 적발 가능성 낮아...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동아일보_2023.03.10.

[북한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세계 최하위](#)

시사저널_2023.03.10.

◎ 청년 / 청소년

[학원으로 몰린 '코로나 세대'...작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3.03.07.

◎ 경제 / 기업

[비정규직·저임금 중년여성 노동자...성폭력 말하면 잘릴까 입담아](#)

한겨레_2023.03.08.

['못다쓴 연차 3.6일' 국내 소진땀 10兆 효과...갤럭시보다 효과](#)

매일경제_2023.03.10.

[행시 수석은 해수부, 차석은 농식품부 MZ세대 공무원 "에이스보다 워라밸"](#)

매일경제_2023.03.0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게을러... 의지 부족... "똥똥하면 무시·차별 당한다"\(비만 인식 조사\)](#)

헬스조선_2023.03.03.

[식사 '이렇게' 하면... 알츠하이머 위험 40% 뚝](#)

헬스조선_2023.03.13.

[한국 여성 67% "한국 보건의료 정책, 여성 건강 지원 못 해"](#)

헬스조선_2023.03.08.

◎ **국제**

["소득 격차 여전해"...여성의 52%가 독신인 '이 나라'](#)

매일경제_2023.03.09.

◎ **칼럼**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중앙일보_2023.03.09.

◎ **기독교 / 종교**

["교회 봉사 탓에 주말 여행도 언급생심"](#)

더미션(국민일보)_2023.03.13.

[美 교회들, 소그룹 참여 줄었지만 결신은 계속돼](#)

크리스천투데이_2023.03.13.

[한국 교회학교, 예전 수준 회복 기대감](#)

크리스찬타임스_2023.03.10.

◎ **기획기사 :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국민일보)**

〈제1부〉 대한민국 '나홀로' 보고서

[1. 4명 중 1명 '중증의 고독'... 종교인이 외로움 덜 났다](#) _2023.02.01.

[2. 공동체성 강한 교회에선 '네 가지 감정' 가질 수 있다](#) _2023.02.08.

[3. 생각 나누는 한 명만 있어도... 외로움은 극단으로 치닫는 빨간불](#) _2023.02.15.

〈제2부〉 마음 낮은 이들과의 동행

[4. 외로움 방치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 공감·배려로 관심 보이자](#) _2023.02.22.

[5. "교회는 비신자들 누가 와도 포용하며 이야기 들을 준비 돼 있다"](#) _2023.03.01.

[6. '야쿠르트 아줌마' 집집마다 배달 노크... 홀몸 어르신 살핀다](#) _2023.03.08.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회성교회 (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감덕규,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대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성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성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장민, 송 섭, 송오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형, 윤동하, 윤상현,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규,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석준, 이선진, 이성근, 이성득,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형근,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임정순, 원하나, 장명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용립,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웅,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찬,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원경,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임정순, 산성교회(담임목사 지성업)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WGN 세계문화유산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

우리 연구소와 MOU체결 기관인 사)한일연합선교회(이사장 정성진 목사)에서 일본 세계문화유산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선박편(부산항) 7월 3일(월) - 7일(금)

항공편(인천공항) 7월 4일(화) - 7일(금)

장 소 : 나가사키(히라도, 오무라, 사세보(하우스텐보스))

신청기한 : 2023.6.9(금)까지

문 의 : WGN사무국 010-5484-1189



온라인신청